

한일간 IT협력 활성화

8월 30일 중의원 총선 결과 제1야당인 민주당이 단독 과반수(총 480석중 308석) 획득에 성공했다. 54년간('55~'09)의 자민당 장기지배 체제가 마감되고, 최초의 여야 간 정권교체에 따른 하토야마 장관 출범이 가시화되었다.

일본정부 여야간 교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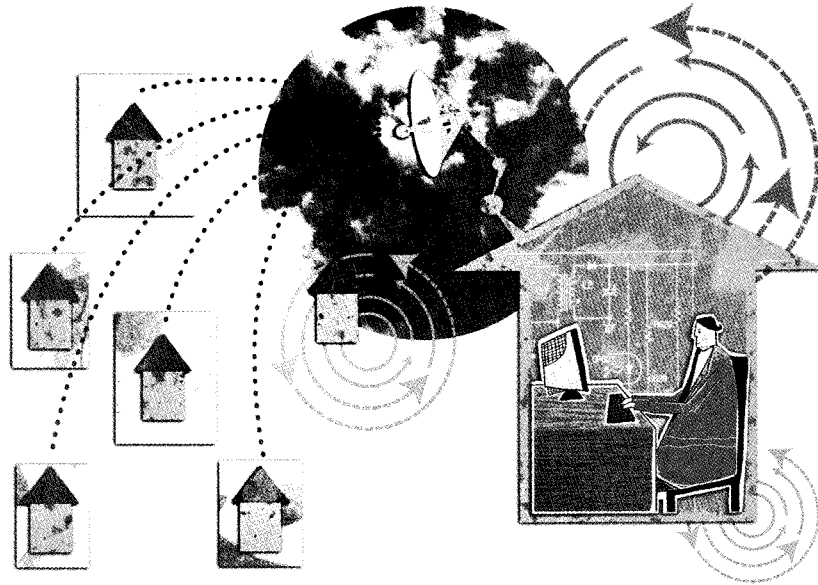
총선 투표율은 69.28%로 지난 5차례 선거 중에

서 최대 투표율을 기록하였고, 여성의원(54명, 11.3%) 및 정치신인(158명, 32.9%)이 대거 당선되었다. 민주당은 정권 인수에 착수한 뒤, 9.15일 하토야마 정권이 출범할 예정이다.

안전과 화합을 우선시하던 일본 유권자들이 압도적으로 '변화'를 선택함으로써 향후 사회·경제 시스템의 지각변동을 예고한다. '08년 글로벌 금융위

【일본 중의원 총선 결과】

당	'05.9.11일 총선	'09.8.30일 총선	
연립여당	자민당	296	119
	공명당	31	21
	소계	327	140
야당 및 기타	민주당	113	308
	공산당	9	9
	사회민주당	7	7
	기타	24	16
	소계	153	340
합계	480	480	



기 이후 성장률 하락과 수출급감으로 인하여 금융 위기의 최대 피해자로 전락되자 자민당에 대한 불신이 증폭된 것이다.

금융위기로 변화 선택

일본 주요 경제지표 ('08~'09.상반기)를 보면, GDP성장률(%)이 ('08)△0.7(선진국중 최하위), ('09.1Q)△3.08, ('09.2Q)0.90이고, 실업률(%)이 ('08)3.98, ('09.1Q)4.43, ('09.2Q)5.20, ('09.7) 5.70이다. 수출증가율(%)이 ('08)△2.9, ('09.1Q) △46.9, ('09.2Q)△39.9, ('09.7)△36.5이고, 산업 생산('05년=100)이 ('08)103.8, ('09.1Q)72.3, ('09.2Q)78.3이다.

'07년 '국민연금 기록 누락' 사건을 계기로 사회 보장시스템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비정규직 증가, 일자리 감소 등)이 일거에 노출되었다. 국민연금 기록 누락 사건이란 '07.5월 국회의 사회보장청 심의중 약 5천만 건 규모의 연금 기록 누락이 발각되고 이후 후생성의 복구 작업에도 불구하고, 약 2천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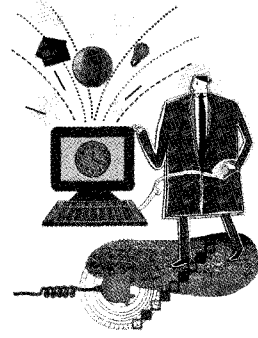
건의 기록이 특정 불가능 상태로 잔존한 것이다.

중국·한국 등 주변국의 글로벌 기업들이 약진하고 있는 반면, 세계 1위 자동차업체인 도요타의 영업적자가 확대되는 등 세계 2위의 경제대국 위치가 흔들리는 상황이다. 도요타자동차 영업손실은 ('08) △4,610억엔(약 5조9,100억원), ('09.1Q)1,948억엔(약 2조 4,900억원)이고, 매출은 (△38.3%↓), ('09전망)△7,500억엔(약9조 6,000억원)이다.

일본신정부 내수 확대정책 추진

일본 주요 정책 변화를 보면, 민주당의 정책 기조에 있어 민주당은 중산층 도시 근로자를 정치적 기반으로 한 중도개혁당이나, 자유당과의 통합으로 농촌 및 비도시 지역에도 정치적 기반을 보유한다.

개혁 중시의 기본 틀은 유지되나, 당내 진보 및 보수 정치인들이 공존하여 절충을 위한 중도 보수적 성향이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 정치·외교·안보 등 모든 정책분야에서 개혁적 조치들(對美외교 축소, 對아시아협력 통합 확대 등)이 대거 등장할



서민층 보호와 사회보장을 위해 대폭적인 예산투입

다만, 관련 분야의 한국기업 경쟁력이 일본기업보다 뒤쳐져 있어 일본 내수시장 점유율 확대에는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자동차산업은 통행료 무료화, 취득세 폐지 등으로 판매 확대가 예상되나, 對日 자동차부품 수출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가능성이다. 또한, 예산 낭비를 줄여 재정을 건전화 하는 한편, 사회보장제도를 발본 개혁하고, 내수 확대를 통한 경제 활성화 추진이 예상된다.

【일본 민주당 Manifesto 2009】

- ① 국가총예산 207조엔을 전면 재구성(의원세습, 기업단체 헌금 금지 등)
- ② 중학교 졸업까지 1인당 31만엔의 자녀수당 지급(고등학교 무료화 등)
- ③ 연금제도를 일원화하고, 월 7만엔의 최저보장 연금 실현(의사수 1.5배 확대 등)
- ④ 지역주권 확립 및 지방의 자주재원 대폭 확충(고속도로 무료화 등)
- ⑤ 중소기업 법인세율 11%로 인하(지구온난화대책 추진, 신산업 육성 등)

경제회복에 5년 소요

일본 경제의 주요 과제로 일본 경제는 향후 1.5%

씩 성장하더라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는데 5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또한, 일본정부 부채 부담(860조엔)과 저출산·고령화와 인구감소 문제, 사회보장제도 개혁 등이 차기 정권의 주요 과제로 대두된다. 일본정부 부채는 '09.6월말 860조엔으로 국민 1인당 약 674만엔 수준(GDP의 200%에 근접하는 정부부채 잔고 기준은 선진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다.

신정부 직접지원 방식

일본 신정부의 경제정책 추진방향을 보면, 경기 부양 또는 내수활성화 수단으로써 간접적인 지원보다는 직접적인 지원방식을 선택할 가능성이 있다.

자민당은 공공투자 확대를 위해 업종별 단체, 지자체, 조합 등을 통한 간접 지원방식을 선호했다. 아동수당 지급, 고속도로 무료화, 구직자 지원, 농가소득 보상 등 단체나 지자체 등을 통하지 않고, 개인에게 직접 전달되는 형식이다.

재정 건전화와 정책수행을 위해 세금 인상없이

기존 예산 내에서 낭비적, 불필요한 예산삭감을 통해 신규정책 재원 확보를 고려한다. 자민당은 재정건전화화를 위해 소비세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재정 건전화보다는 당분간은 '경제 살리기'를 우선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재정건전화 목표를 '10년도 예산편성시에 제시한다며 언급을 회피하고 있다.

미일 FTA 추진

미일 FTA를 추진하는 등 다소 적극적인 대외경제정책을 표방하고, 통상·에너지·금융·환경 등에서 대아시아 외교관계 강화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아시아 공용통화 창설 등 '아시아공동체'를 표명하고, 야스쿠니 신사참배 금지, 일제 식민지시대 반성 강조 등 미래지향적 태도를 견지한다. 다만, 역사교과서, 독도 문제에 대해 자민당과 차이가 없을 전망이다.

내수주도형 경제성장을 표명하나, 수출주도형 경제성장에 의존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부품소재형 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는 한편, 환경·에너지산업이 수출주력산업의 대열에 합류할 가능성이 있다. 민주당은 IT, 나노, 바이오 분야의 기술개발뿐만 아니라, 환경관련 산업의 육성에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한일 양국간 IT분야 협력 활성화

對韓 무역투자에 미칠 영향에서는 양국 기업간 IT·BT·NT·환경·재생에너지 분야에서 협력이 활성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식경제부 자료에 나타났다. 서민층 보호와 사회보장을 위해 대폭적인 예

산투입이 계획되는 의료(용품)·교육(기자재)·실버비즈니스·육아(용품) 시장이 확대될 전망이다.

다만, 관련 분야의 한국기업 경쟁력이 일본기업보다 뒤쳐져 있어 일본 내수시장 점유율 확대에는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자동차산업은 통행료 무료화, 취득세 폐지 등으로 판매 확대가 예상되나, 對日 자동차부품 수출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對日 자동차 수출은 전무하며, 자동차부품의 경우 '09.1~7월간 1.8억불 수출했다.

일본 제조업체들 해외이전 가속화

제조업 파견노동자제도의 원칙적 금지로 향후 일본 제조업체들의 제조거점 해외이전 가속화로 對韓 투자 진출 유인이 증가할 것이다. 다만, 한국보다는 중국·동남아 등으로 이전 가능성이 큰 편이다.

KOTRA 조사('09.8)에서 Zojirush社 및 Asahi Glass社 등 주요 기업들도 對韓 교역·투자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전망되었다. 대부분의 한국 기업들도 일 총선결과가 한국에 미치는 영향은 별로 없을 것으로 전망하였다. 무역협회 조사('09.8)는 (영향없음)포스코재팬, 일본삼성, LG전자재팬, SK에너지, 롯데건설, (장기적으로 소비 다소 확대)CJ재팬 등이다.

한국의 對日 수출은 '09.1~7월간 116.2억불이며, 원자재(49.6억불, 42.7%)·자본재(45.9억불, 39.5%) 중심이다. 일본 민주당의 내수 진작 정책으로 일본내 소비재 소비가 증가할 것으로 보이나, 對日 소비재 수출 증가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 '09년 對日 무역수지 전망은 수출 217억불(△23.2%), 수입 467억불(△23.4%), 무역수지 △250억불 적자('08년 대비 △77억불 감소 예상)이다.